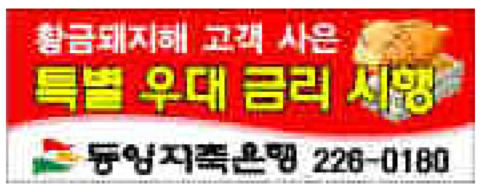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69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3월 6일 (음력 1월 17일) 화요일



수도권선 "기득권 지키자" 영남선 "우리도 챙기자"

너도나도 특별법 호남 죽인다

지역개발을 미명으로 한 특별법이 난립하고 있다. 특별법은 광주·전남 지역과 같이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특례를 위해 제정되어야 하나 최근 특별법 제정 자체가 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 흥정의 산물로 전락하면서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는 극을 달리고 있다.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정된 각종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이나 새로운 법률안을 마구 발의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타 자치단체에 대항하는 맞대응적 성격의 특별법이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6일 현재 국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경제부처 등이 이전함에 따라 정부 종합청사가 소재한 경기도 과천지역 경제침체가 우려된다며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과천지원특별법안'이 계류중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수도권에도 기업이 이전할 경우 다른 지역과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률개정안도 제출됐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수도권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목표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과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균형발전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이 꼭 필요한 특정지역의 사정을 외면한 채 법 제정 타당성이 떨어지는 맞대응 성격의 특별법이 마구 추진돼 혼선을 빚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전남·경남도, 부산시는 남해안의 무분별한 규제로 각종 어업 및 해양관광개발이 더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남해안발전특별법'을 공동추진하고 있으나 경북·강원지역 의원들이 이에 맞서 '동해안광역권개발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남도가 낙후 해소를 위해 개최하는 2010년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을 위한 'F1특별법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는 충청권의 '사비 역사도시 복원·조성 및 지원 특별법안'과 영남권의 '세계역사문화도시(경주)조성 지원 특별법안'이 동시에 제출된 상태여서 지역별 의원간 담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전북도가 5일 새만금지역을 친환경적인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안'을 확정 발표해 전남도의 서남권개발과의 충돌이 불보듯 뻔하게됐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김계관 "남북한 전쟁터 원치 않아"

北-美, 뉴욕서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첫 회의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공식 회담이 5일 오후(한국시각 6일 오전) 뉴욕에서 시작됐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양측 대표단은 이날 뉴욕의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첫 회의에 들어가 6일까지 비공개 논의를 계속한다. 〈관련기사 6면〉

양측은 2002년 10월 2차 북한 핵위기 발발 이후 4년5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이번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 적성국 교역금지법에 의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등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향해 가기 위해 풀어야 할 현안들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관련 미국을 방문 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최근 북미, 남북관계의 진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한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

꽃샘추위…꽃도 아이도 '파르르' 활짝 핀 산수유와 함께 바짝 다가온 봄이 꽃샘추위에 갑자기 사라졌다. 진눈깨비에 놀라 파르르 떨고 있는 산수유 꽃 아래로 어린이들이 잔뜩 웅크린 채 하교 길을 재촉하고 있다. 5일 오후 광주시 북구 문흥동 일신아파트 앞.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여수엑스포 '현대車'가 나섰다

이달중 그룹내 유치전담팀 구성

190여개국 지점 홍보활동 지원

다시 현대가 나섰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5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현대차 그룹이 박람회 유치전에 나선 것은 정몽구 회장의 강력한 유치 의지 때문이다. 정 회장은 중국 상하이, 러시아 모스크바 등과 맞붙은 2010년 여수박람회 유치전을 총괄하는 유치위원장을 맡았다가 실패했었다.

정 회장은 지난 2002년 12월 여수 유치에 실패한 뒤 "2012년 박람회는 반드시 여수에 유치해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말해왔었다. 정 회장은 지난해 구성된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고문도 맡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달 중 그룹 내 유치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박람회 유치를 위한 그룹 차원의 지원 계획을 세우고, 유치위원회 측과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는 것이다.

세계박람회기구(BIE) 사무국이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는 유치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의 사무소가 운영된다. 전 세계 190여개국에 위치한 해외 법인 및 대리점 등 기아·현대차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물론 활용된다.

그룹 관계자는 "세계박람회 유치에 한국 외에 폴란드(탕헤르)와 모로코(브로츠와프)가 뛰어든 만큼 파리 전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의 지원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최지 결정 투표권을 갖고 있는 BIE 회원국을 상대로 모터쇼나 신차 시승 행사 초청 등 이벤트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BIE 회원국 주요 인사들을 여수에 초청해 여수 지역의 준비상황 등을 홍보한다는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 그룹은 최근 서울 계동 사옥 전면에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여수박람회 유치전을 치른 경험이 있고 세계적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회장과 기아·현대차그룹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은 여수 유치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반색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해수부 "유치전 여수가 우위"

국회 여수박람회유치특위(위원장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서갑원 의원과 주승용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정부의 여수박람회 유치 활동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와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는 모로코(탕헤르)와 폴란드(브로츠와프)가 각기 회교국과 EU를 등에 업고 치열한 유치전을 펴고 있으나 여수가 국가 경제적 여건과 국제행사 경험에서 월등한 데다 박람회 주제도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전체적인 경쟁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유치위원회는 또 동아시아에서 세계박람회가 연이어 열린다는 점이 여수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역대 엑스포 개최지(총 110회) 가운데 미국 30회, 영국 14회, 프랑스 12회, 벨기에 7회 등 유럽과 미국에 편중 개최됐다는 점을 내세워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갑원 여수박람회 특위 간사는 "오는 4월 9일로 예정된 BIE 현지 실사를 앞두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치 활동의 다각화 및 전략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코스피 1,376.15 (-38.32) 폭락

지난달 27일 발생한 '차이나 쇼크' 이후 엿새만에 한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 '블랙 먼데이'를 연출했다. 〈관련기사 11면〉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38.32포인트(2.71%) 내린 1,376.15로 마감, 나흘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코스닥지수도 12.96포인트(2.14%) 하락한 594.03로 거래를 마쳤다.